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4:00 이후) 배포 2026. 11. 20.(금)

조달청, AI 시대 공공조달의 미래전략 모색

-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26년 조달정책 성과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 공급망 안정·공정조달 강화부터 데이터·AI 기반 조달행정 혁신까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공공조달의 오늘과 내일: 2026년 성과와 AI 시대의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해 공공조달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조달행정의 지능화와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방안 논의

1부 세션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과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주제로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헌우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조달청의 주요 성과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으며, 조윤기 공사입찰점검팀 사무관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통한 공정한 공공건설 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오정민 한양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 AI 기반 조달행정 지능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2부 세션에서는 '혁신조달의 성과와 AI 기반 조달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조달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승규 혁신제품지원센터 박사는 혁신 공공조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으며, 신재욱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서기관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조달행정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AI를 통한 조달행정의 지능화와 전략적 조달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AI 대전환 시대의 공공조달은 단순한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조달행정의 지능화는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공공조달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공공 수요와 신기술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안들을 향후 조달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과감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동헌 (042-724-7082)
		담당자	서기관	박선옥 (042-724-707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